

조선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려나간다

사진으로 보는 고유한 미풍양속

연피우기며 제기차기를 비롯한 흥겨운 민속놀이를 하는 학생소년들, 설명절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조선택을 올리는 귀여운 어린이들, 치마저고리를 입고 이 옷들과 함께 모여앉아 옷놀이를 하는 녀성들의 모습...

오른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생활양식과 풍습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그 고유한 민족전통은 세

월의 흐름속에서도 련綿히 이어지고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웃들간에 정을 주고받으며 화목하게 살아왔고 어려움을 매일수록 서로 도와주는 것을 미풍으로 여겨왔다. 부모들을 잘 모시고 처자

들을 사랑하며 옷사람과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것, 손님을 잘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것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이다. 아래의 사진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도 우수한 민족전통

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공화국을 찾은 한 해외동포는 민족의 정서와 향취가 차넘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세계화)의 소용돌이속

에 많은 나라들에서 고유한 민족전통들이 사멸되어가고 있지만 조국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누구나 자기의것을 제일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이 땅에서 민족의 고유한 향취, 유구한 전통과 풍습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문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여러가지 민족악기를 만들어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그중에는 가야금도 있다. 이 악기는 6세기 초엽 제능있는 음악가 우륵이 가야금에서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금》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가야금은 줄을 손가락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얻는 악기로 구조가 간단하고 연주법이 다양하다. 탄력이 있으면서도 그 울림이 부드럽고 우아하며 연주자세가 물동적이고 아름다워 민족적향취를 질게 풍기는 가야금은 오늘날도 널리 리용되고있는 대표적인 민족악기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지금도 해외동포들은 몇몇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화려한 무대에서 울려던 가야금소리를 잊지 못하고있다. 거기에 참가하였던 세명의 남자가야금수중에는 김원균명

청 평양음악대학에서 민족악기연주자후비들을 키워내고있는 경남철도도 있다. 지난 기간 여러 예술공연무대에 출연하여 사람들의 절찬을 받은 그는 자기 딸에게도 가야금을 배워주었다. 저녁이면 그의 가정에서는 가야금소리가 울려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준다. 어느 한 나라에서 진행된 예술축전에서 그가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틀어잡는 미묘한 울림이 나오는 가야금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자랑일뿐 아니라 인류 문명이 창조해놓은 보물중의 하나》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경남철도는 말한다. 《우리 민족악기의 독특한 소리와 섬세한 기교는 그 어떤 악기로도 대신할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족악기연주자들을 많이 키워내어 민족음악예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해나가렵니다.》 본사기자 흥범식

공화국의 각지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옷점들이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갖가지 장식기법들로 훌륭하게 만든 결혼식옷과 명절옷들이 진열대에 한가득 걸려있는 조선옷점들 그 어디라 할것없이 조선치마저고리들을 입어보기도 하고 또 감을 팔라두고 형태며 색깔에 대하여 봉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녀성들을 볼수 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짚는 처녀들이며 결혼식날에 입을 첫날옷을 맡기러 왔다는 녀성들, 유치원에 다니는 딸애가 색동저고리

를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웃음속에 바라보는 녀인도 있다. 《옷이 날개라더니 살구

조선옷점의 봉사원들은 조선치마저고리를 주문하러 오는 녀성들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은 옷을 입고 기뻐

아도 온갖 지성을 기울이게 된다고 자랑을 담아 이야기한다.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색배합, 한껏 기술인 정성이 한눈에 안겨오는 여러가지 색깔과 무늬의 조선치마저고리들을 입고 기쁨에 웃음짓는 녀인들의 모습은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생활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고유의 기초식품인 토장은 독특한 풍미와 뛰어난 영양가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평양토장국집은 토장으로 여러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잘 만들기로 소문이 나고있다. 기자와 만난 이곳 식당의 박금향원장은 《음식맛이 좋자면 맛 좋은 장을 써야 한다. (장이 달아야 국이 달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와 같은 속담도 있듯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식생활에서 장을 매우 중시해왔다. 특히 토장에

수화물 그리고 캔티드, 아미노산, 사포닌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아주 좋다. 토장 30g을 섭취하면 인산 2g을 먹는것과 맛 먹는다는 말도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이곳 식당에서는 자체로 만든 토장으로 두부시래기토장국, 소고기토장국, 두부매운탕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들을 성의껏 만들어 봉사하고있다. 그는 음식을 만들 때 토장을 두면 잡냄새를 없애고 감칠맛과 구수한 맛을 내는데 그 맛이 좋아 손님들의 호평을 받는다는것이였다. 그리고보니 식탁마다 손님들이 김이 문문 나는 토

장국과 토장으로 만든 요리들을 마추고 땀흘리며 먹는 모습이 인상깊게 안겨왔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인 최영범은 《아무리 맛있는 고기국도 계속 먹으면 물리는네 토장국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고 계속 찾게 되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토장국이다.》라고 말했다. 중구역 동안1동에서 산다는 서춘삼로인은 《입맛을 돋구어주는 토장을 먹으면 힘이 솟는것이 알린다. 뉘니 뉘니해도 우리의 토장국 맛이 제일이다.》고 하며 웃었다. 하나의 음식상에서도 자기

법운암과 더불어 10여년

평양의 룡악산에 가면 력사유적관리에 성실한 담과 열정을 바쳐가는 신철룡, 리미경부부를 볼수가 있다. 만경대구역민족유산보호관리소 법운암관리원들이 이들부부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법운암을 여러차례 찾으시어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높은 뜻을 받들고 오랜 세월 하루와 같이 귀중한 력사유적을 원상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10여년전 신철룡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를 졸업하고 이곳에 처음 배치되어왔을 때 그에게 민족유산의 귀중함을 새겨준 사람은 목욕터 력사유적을 지켜온 관리원아이였다고 한다. 순간순간 조국에, 민족에로 심장을 쫓아는 그의 모습을 보며 것처럼 행세를 겪었던 신철룡의 굳은 결심을 다진 신철룡, 오늘날 그의 지향은 변함이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깨닫는 향심으로 만들어가는 이들과 같은 참된 애국자들에 의해 우리의 문화유산들은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한는 녀성들을 볼 때면 자기 일에 대한 남다른 긍지감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한뼘의 바느질에도 정성을 고이고 꽃 하나를 수놓

이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인민의 고상한 감정과 지향이 그대로 비껴오는 풍경이였다. 남의것보다 자기의것으로 만든 고유한 민족음식을 더 달게 들며 더 좋아질 때일을 마중가는 이것이 바로 공화국인민들의 행복넘친 생활이 아니라. 본사기자 림광훈

씨름명수들이 많이 나는 고장

공화국에서 민족체육종목인 씨름 하면 의례히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리가 화제에 오르곤 한다. 그만큼 이 고장은 씨름과 더불어 흥하는 고장, 씨름명수들이 많이 나오는 고장으로 소문이 났다.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 로동의 일참에 작업반별, 분조별씨름경기가 이채를 띠고 진행될 때면 농장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떨쳐나 용인에 열을 올린다. 빗장걸이, 호미걸이, 원궁등배지기 등이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구경하려고 읍주민들까지 찾아오고있다. 제10차 인민체육대회 비교씨름에서 1등을 한 리정철, 제8차 대항상 전국민족씨름경기 60kg급에서 우수한 림태명과 같이 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씨름명수들도 이 고장에서 나서자다. 2014년 대항상씨름을 쟁취한 조명진선수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씨름경기에 출전하는 평안북도립에는 룡천군 사람들, 특히 신암리사람들이 많다. 본사기자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적인 생활풍습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이 땅에서는 우리 겨레의 사상감정에 맞는 귀중한 재부들이 빛을 뿌리고 민족의 정서에 맞는 생활기풍이 공기처럼 흐르고있다.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평양의 거리를 걷노라면 푸른 합각지붕을 띠고 높이 솟아있는 인민대학습당이며 평

명 남조선사람들인데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외국어 상표를 경쟁적으로 다는것이다. 편안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회제도의 현실은 공화국 이야기말로 주체성, 민족성이 살아숨쉬는 진정한 민족의 보금자리임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생활 용어 1643개를 조사분석한데 의하면 우리 말은 불과 5%이고 95%가 외래어와 잡랑말이라고 한다. 비싼 상품일수록 외국어 상표를 다는것이 유행으로 되고있다. 소비자는 분

양대구장과 옥류관, 인민문화궁전, 을밀대와 련광정, 보통문을 비롯한 수많은 창조물들과 귀중한 력사유적들이 눈앞에 어려온다. 어디 그뿐인가. 옷놀이, 연피우기, 팽이치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들이 적극 장려되고 해마다 민족로리정원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사회적으로 민족음식 문화가 활짝 꽃피고있다. 이 땅에서는 노래를 불러도

제 선물로 부르고 춤을 추어도 제 장단으로 추며 옷 놀이를 입고 우리 민족의 옷을 입고 인사를 해도 조선 절을 한다. 정말이지 가는 곳마다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세상에 빛내여가는 이 나라 인민들의 생활을 배부르 느낄 수 있다. 하기에 《민족과 나》라는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족후주의가 만연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사라져가고있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다문화사회건설》로 국제결혼이 장려되어 혼혈인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양기문화와 왜색제품이 범람하여 옷차림과 머리단장에서도 고유한 민족의 넓이 점차 사멸되어가고 있다.



민족유산과 풍습을 대를 이어 지켜간다

흥남새나는 조선의 토장국

— 평양토장국집을 찾아서 —



수화물 그리고 캔티드, 아미노산, 사포닌 등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아주 좋다. 토장 30g을 섭취하면 인산 2g을 먹는것과 맛 먹는다는 말도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이곳 식당에서는 자체로 만든 토장으로 두부시래기토장국, 소고기토장국, 두부매운탕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들을 성의껏 만들어 봉사하고있다. 그는 음식을 만들 때 토장을 두면 잡냄새를 없애고 감칠맛과 구수한 맛을 내는데 그 맛이 좋아 손님들의 호평을 받는다는것이였다. 그리고보니 식탁마다 손님들이 김이 문문 나는 토

이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인민의 고상한 감정과 지향이 그대로 비껴오는 풍경이였다. 남의것보다 자기의것으로 만든 고유한 민족음식을 더 달게 들며 더 좋아질 때일을 마중가는 이것이 바로 공화국인민들의 행복넘친 생활이 아니라. 본사기자 림광훈

꽃피는 민족문화전통, 사라져가는 민족성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적인 생활풍습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이 땅에서는 우리 겨레의 사상감정에 맞는 귀중한 재부들이 빛을 뿌리고 민족의 정서에 맞는 생활기풍이 공기처럼 흐르고있다.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평양의 거리를 걷노라면 푸른 합각지붕을 띠고 높이 솟아있는 인민대학습당이며 평

우수한 우리 말과 글이 버림 받고 보고 듣고도 리해할수 없는 외래어, 잡랑말이 범람하고있는것도 문제이다. 기판명칭과 공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출판물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영어표현들과 잡랑말로 지면을 채우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에서 생활 용어 1643개를 조사분석한데 의하면 우리 말은 불과 5%이고 95%가 외래어와 잡랑말이라고 한다. 비싼 상품일수록 외국어 상표를 다는것이 유행으로 되고있다. 소비자는 분

명 남조선사람들인데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외국어 상표를 경쟁적으로 다는것이다. 편안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회제도의 현실은 공화국 이야기말로 주체성, 민족성이 살아숨쉬는 진정한 민족의 보금자리임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생활 용어 1643개를 조사분석한데 의하면 우리 말은 불과 5%이고 95%가 외래어와 잡랑말이라고 한다. 비싼 상품일수록 외국어 상표를 다는것이 유행으로 되고있다. 소비자는 분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남조선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족후주의가 만연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사라져가고있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다문화사회건설》로 국제결혼이 장려되어 혼혈인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양기문화와 왜색제품이 범람하여 옷차림과 머리단장에서도 고유한 민족의 넓이 점차 사멸되어가고 있다.

